

보도시점

배포즉시

배 포 2026. 7. 21.(화) 15:00

“과거를 배우고 미래를 잇다”...국내체류동포 청소년·대학생 역사문화캠프 열려

- 고려인·조선족·한베자녀 등 57명 대상 4박 5일 역사문화캠프 개최
- ‘이주의 시작’부터 ‘오늘의 한국’까지...이야기로 배우는 역사문화 탐방 운영

【관련 국정과제】 123.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(국격에 걸맞는
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)

- 러시아·CIS, 중국, 베트남, 호주, 멕시코 등 국내에 정착한 차세대 동포 청소년과 대학생 57명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따라 우리 민족의 발자취를 배우고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역사문화캠프에 참여한다.
 -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4박 5일간 국내 체류동포 청소년 42명과 대학생 15명 등 총 57명을 대상으로 ‘국내체류동포 청소년·대학생 역사문화캠프’를 연다.
 -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번 캠프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키우고, 또래 동포들과 교류하며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.
- 참가자들은 해외 이주의 시작부터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, 6.25 전쟁과 분단, 오늘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요 역사·문화 현장을 탐방하며 우리 역사를 입체적으로 배운다.
 - 첫날에는 재외동포청 홍보대사 최태성 선생님의 특강을 통해 해외 이주사부터 현대 대한민국까지의 역사를 이해하고, 인천이민사박물관과 개항장 거리를 찾아 우리 선조들의 이주 역사를 살펴본다.
 - 이어 서대문형무소 역사관,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, 안중근기념관 등을 방문해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, 경기도 파주 DMZ에서는

분단의 현실과 평화의 가치를 체험한다.

- 마지막 여정으로 경복궁과 국립중앙박물관, 성수동 문화거리를 찾아 대한민국의 전통과 현대문화를 함께 경험하며 오늘날 세계 속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.

□ 역사문화 체험과 함께 한국 사회 적응과 진로 탐색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.

- 한국은행과 연계한 경제·금융 교육과 화폐박물관 견학을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 지식을 배우고, 국내에 정착한 선배들과의 멘토링을 통해 학업과 진로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했다.

- 국내체류동포 선배인 박려정 고려대 연구교수와 문블라다 삼성전자 개발자가 멘토로 참여한다.

□ 재외동포청 이기성 국장은 “이번 캠프를 통해 청년들이 서로 다른 성장 배경을 넘어, 한민족이라는 하나의 뿌리를 확인하고 연대감을 느끼길 바란다”며, “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,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·선후배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.”고 말했다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	책임자	과 장 이규현 (032-585-3172)
		담당자	사무관 오은아 (032-585-3176)